

## 한국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소비지출 비교분석

김 순 미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이 윤 정\*(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강사)

본 연구는 급속한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함께 대두된 고령화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 독신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여성노인 독신가구와 남성노인 독신가구의 소비지출을 비교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1996년 「가구소비실태 조사보고서」를 사용하였으며, 55세 이상의 남녀노인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빈도와 백분율, t-test와 회귀분석, Tobit분석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여성노인 독신가구는 총 1,980가구, 남성노인 독신가구는 214가구로 여성노인의 수가 많고, 이들 평균 연령도 68.6세로 남성노인(66.6세)보다 높았다. 교육수준은 여성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학인 경우가 남성노인보다 많았으며,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남성보다는 낮았다. 직업에서도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보다 무직인 비율이 높았고, 연간소득수준도 낮게 나타났다(여성은 약 510만원, 남성은 766만원). 주거에 있어서는 여성노인의 경우(61.4%)가 남성(39.3%)보다 자가 소유율은 높게 나타났다. 두집단의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했을 때, 비목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 부분은 식비와 식비 중의 외식비 지출액,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로 나타났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비지출 비목 중 비중이 큰 순서를 살펴보면, 여성은 식비, 기타소비지출,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이었고, 남성노인 단독가구는 식비(특히 외식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기타소비지출,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소비지출패턴이 성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성은 건강상의 문제로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은 편이었고, 남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부정적 현상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외식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그것이다.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가계특성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계지출비에는 여성의 경우, 직업이 없고, 가구연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은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연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규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성노인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소비생활수준 등은 남성노인보다 높지 않은 편으로 이들의 가정경제적 생활수준이 남성노인보다 낮으며,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이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의 복지정책에 있어 여성노인 독신가구의 소득보장차원의 사회제도적 측면이 요구되며, 특히 식비의 지출이나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의 지출에서 남녀노인 단독가구의 지출규모가 다르고,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이들 항목 모두에서 여성노인의 지출수준이 낮게 나타난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수준에 가까스로 이르는 여성노인 독신가구의 상황으로 보아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 차원이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차원에서의 의료혜택 범위와 서비스 질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하겠다.